

전남형 만원주택 입주자격(안) 마련... 도민 의견 수렴

누리집 공고·8개 권역별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해 확정키로

전라남도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 지원과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전남형 만원주택'의 입주자격(안)을 마련하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넓은 면적의 신축아파트를 건설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획기적 주거모델이다. 단순히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10년 뒤 지역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4인 가족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이번 입주자격(안)은 그동안 도내 인구 감소지역 16개 군과 청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된 초안이다.

입주자격(안)에 따르면 청년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자 가운데 전남에 근무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농·어·임·축산업 종사자, 예술인 등이 해당된다.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초 4년 계약 후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 기준은 외별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맞벌이는 180% 이하로 설정됐다.

특히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3년씩 거주기간이 연장돼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어 결혼과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기준에는 전남형 만원주택만의 차별화된 운영 방안도 담겼다. 가정어린이집 운영자를 반드시 1호 배정해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준비청년이나 예술인을 배정해 관리비 절감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청소·안내 등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입주민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게도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청년 2인 이상 공동생활 가구,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정착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우선 공급 대상으로 지정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뒀다.



다. 이번 입주자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전남도 누리집 공고와 8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제기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전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남도는 오는 10월부터 전남형 만원주택에 대한 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2026년 하반기 진도군에서 첫 번째 전남형 만원주택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형 만원주택은 단순히 임대료가 저렴한 집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거 플랫폼"이라며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광양경제청 중국투자유치단은 9.4. 중국 광저우 소재 해외투자종합서비스센터를 방문해 투자유치활동을 펼쳤다.

광양경제청, 글로벌 유통기업 투자상담

중국 광둥성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기관새로운 협력 관계 마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중곤 광양경제청장, 이하 광양경제청)은 9월 4일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해외투자 종합서비스센터와 개인생활 위생용품 최대 수입업체인 헤마이헤다그룹(Hemaiheda Group)을 방문해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해외투자 종합서비스센터는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및 해외투자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신고, 정책상담, 금융·세무 등 윈윈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투자 분야에서 높은 인지도와 노하우를 축적한 기관이다.

구중곤 광양경제청장은 종합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광양만권은 중국 기업 투자가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산업인프라와 정주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며 "해외투자 의향기업이 우리지역을 방문하여 투자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하였다.

종합서비스센터 쉬에이(Xu Wei) 국제부책임자는 "한국의 안정적인 투

자환경과 광양만권의 산업발전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광양만권 홍보, 투자설명회 공동 개최, 전략적 업무협력관계 구축 등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센터 방문에 이어 중국 최대 개인 생활 및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글로벌 유통기업 헤마이헤다그룹을 방문하여, 궁정(Gong Zheng)회장과 차담회를 가졌다.

헤마이헤다그룹은 유럽, 미국, 한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샴푸, 세제, 바디워시, 티슈 등 개인위생용품을 수입하여 중국시장에 판매하는 글로벌 유통기업으로 4만 여개의 매장에 1천 여개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차담회에서 구중곤 청장은 "광양만권내 관련 제품 생산기업의 중국시장 판로확대에 힘써줄 것과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지역에 물류창고 및 개인 생활용품 생산시설 투자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언급하였다.

광양/신선호 기자

전라남도는 사방댐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과 현장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정부의 안전 강화 정책 기조와 지역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13개 시군에서 시행중인 사방댐 사업장 54개소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와 이행 상태 ▲작업 전 안전점검의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 ▲근로자

전남도, 사방댐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특별점검

8일까지 13개 시군 54개소...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등 집중

보후구 지급과 착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업장은 개선방안과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산업재해 제로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올해 27억 원을 투입해 사방댐 111개소 신설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을 우선해 57개소를 완료, 산사태로부터 도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계류보전 42km, 산지사방 18ha,

산림유역관리 8개소 등 3개 사업 총 185억 원을 투입해 지역 생활권 중심으로 산사태 예방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김경연 전남도 환경산업국장은 "집중호우시 산사태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사방댐 품질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는 산 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기본 수칙과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신영길 기자

도시보다 높은 韓 농촌 자살률... 10만명 중 32명은 극단선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자살률이 특히 농촌 지역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은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가 10년째 30명 안팎인데, 인구감소지역으로 갈수록 자살률은 더 높아졌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전남 발간한 '농촌 지역 자살예방을 위한 과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7.2명으로, OECD 평균 11.1명의 2.5배에 달한다. 이 가운데 도시 지역 자살률은 26.8명인 반면 농촌은 31.7명으로 도시의 1.2배다. 농촌 자살률은 최근 10년간 대체로 3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도 농촌의 자살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같은해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의 평균 자살률은 41.8명인

농촌경제연구원, '농촌 자살예방 위한 과제' 발간

농촌 자살률 31.7명... 인구감소 군 지역은 48.7명

자살자 40%가 고령층... 80대 이상 초고령층 위험 ↑

데, 이 가운데 농촌 지역인 62개 군은 자살률이 48.7명으로 치솟았다. 농촌이면서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자살 위험이 더 심각하다는 의미다.

연령별 특성을 보면 도시는 20~40대 청년층 자살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농촌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자살 사망자의 40%를 차지했다. 특히 80세 이상 초고령자의 자살률은 17.7%로, 도시(8.9%)보다 두 배에 달했다.

고령층은 자살을 생각하는 주된 이유로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불편'을

꼽았다. 농촌의 자살고위험군 노인의 비율은 1.5%인데, 이 가운데 62.9%가 이와 같이 응답했다.

반면 도시의 경우 같은 응답 비율이 39.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을 고려하면, 농촌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약, 교통 열악, 동거 가족 부재 등으로 아플 때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04년 이후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담전화(109), 자살예방센터 운영, 관련 법 제정 등을 추진해왔지

만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이재명 정부도 자살예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5억여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으나,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해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2006년 '자살예방기본법'을 제정 후 시정촌 단위까지 자살예방 대책 추진을 의무화했다. 특히 지역별 자살 실태를 유형화해 그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예방조치를 추진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23년 자살률이 17.4명으로 20년 전보다 36% 감소했다.

농경연은 농촌 자살예방 강화를 위해 농촌 맞춤형 자살취약성 분석에 기반한 대책 마련을 지원하고, '농촌 자살예방 전용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살예방의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려면 관련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이 비대면 서비스, 이동형 마음안심서비스 등으로 다변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

전남도, 글로벌 경제 변화 속 투자유치 역량 강화

시군-광양경제청 등 대상 워크숍서 맞춤형 전략 수립 교육

전라남도는 5일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시군, 광양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해 글로벌 경제 변화 속 맞춤형 투자전략 수립 역량을 높였다.

워크숍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과 투자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과 외국인 투자지원제도 ▲상호 관세정책동향 및 대응 방안 ▲RE100 의의와 중요성 등 현장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와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특히 코트라(KOTRA), FTA통상종합지

원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해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실무 중심의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최근 경제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투자유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남의 강점을 살린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임채일 기자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